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 요구 분석: J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열^{1*}, 김삼섭²

¹중부대학교 교직과 교수, ²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Students'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Liberal Arts Curriculum : Focused on the Case of J University

Jung-Yull Lee^{1*}, Sam-Sup Kim²

¹Professor, the Faculty of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²Professor, Graduate SchoolT, Joongb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에서는 J대학의 2개 캠퍼스 11개 학부의 재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교과목의 주제 분야, 개설 희망 교과목, 교양교육 개편 시 시급한 과제 등을 성, 학년, 계열 및 캠퍼스별로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로 남학생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여학생은 핵심역량의 달성을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체능 분야의 교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과목은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 스포츠 관련 과목, 철학, 심리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J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양필수,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핵심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udents' needs for improving the liberal arts curriculum at J University. In order to achieve such as this, 422 students from 11 departments of J University's two campuses looked at the core goals of 1 liberal arts education, 2 core competences that they think should be achieved in the liberal arts curriculum, 3 subject areas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they wish to open, 4 hopeful subjects, and 5 urgent tasks in reforming liberal arts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were most likely to point out the achievement of core competency as a key go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econd, the core competences to be achieved in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ere found to place importance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character, self-care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skills. Third, there was a high percentage of people who wanted to open a curriculum in the field of arts and sports. Fourth, liberal arts courses that wish to be opened appeared in the order of women's studies or feminism, sports related subjects, philosophy, and psych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revision of the J University liberal arts curriculum.

Key Words : Compulsory liberal arts subject, Liberal arts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Core competencies

*Corresponding Author : Jung-Yull Lee(jungyull@jbm.ac.kr)

Received October 26,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28,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교양교육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즉 일반교육을 뜻한다. 흔히 직업 기술이나 전문적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과 대비된다. 점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 근원을 둔 전통적인 자유학문적 인문교육(liberal education)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 교양교육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그 개념과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변천하여 왔는데 최근들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현재 이후를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1]. ICBMA(IoT, Cloud, BigData, Mobile, AI) 기술의 발전에 근간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회를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초지능 사회란 알고처럼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능적인 서비스가 확대되는 사회이다. 이로 인해 인간과 기계와의 공존 및 융합,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및 인간성의 회복이 요구될 것이며, 기계를 다룰 줄 알고, 기계가 인간에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인간이 기획하고 설계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2].

또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은 정보기술 역량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역량을 요구한다. 글로벌화 된 업무 환경은 세계공용어뿐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요구한다. 전통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변화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과 대인관계 기술 혹은 의사소통기술을 요구한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과 협력이 요구되는 직업 환경은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즉, 교양교육을 통해 에서이 산출된 결과로서의 지식뿐 아니라 산출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에서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교육으로,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오늘날 각 대학들은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평가 등에 교양교육 지표를 포함시켜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양교육 강화 정책과 관

계 없이 대학교육의 질이 교양교육의 질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인재상과 실천적 과제로서 핵심역량을 설정하는 등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과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인재상에 대한 검토, 목표 인재상을 길러내고자 하는 핵심역량의 효율성과 타당성의 검토, 교양과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 등 그 범주가 매우 넓다. 그 중에서 교육대상인 학생들이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첫 단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대상 당사자의 평가가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성패를 평가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J대학은 대학혁신사업의 하나로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시도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학생성장대학'이라는 기치 아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양교육과정 개선으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특히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J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정도 '학생성장대학'이라는 대학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학생중심 교양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은 학생중심 교양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학생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국내연구는 그 범위도 넓은 뿐 아니라 다양한 하위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 연구[3],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4, 5], 핵심역량 요구[6], 개선 방향과 지원에 관한 연구[7-15], 만족도[16-22] 등의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교양교육과정 개선 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학생의 요구는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개설 희망 교과목의 주제 분야, 개설을 희망하는 핵심역량별 교양교과목, 교양교육 개편시 시급한 과제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J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①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②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③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교과목의 주제 분야, ④ 개설 희망 교과목, ⑤ 교양교육 개편시 시급한 과

제 등을 알아봄으로써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방법

2.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J대학 2~4학년 전체 5,284명을 대상으로 웹상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523명(응답률 9.9%)이었다. 그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들이 많거나 그밖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01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422명의 응답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의 성·학년·학부·캠퍼스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2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교양교육 목표와 내용 개선을 위한 재학생 요구 조사지」는 J대학 학생성장교양학부의 '교양교육 재정립 및 특화 교양교육과정 TFT 연구 보고서'

(최경애 김우석 김종옥 김주석 등, 2019)에서 사용한 「학생성장 지향가치 및 교양교육 니즈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을 거쳐 재구성한 것이다.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핵심목표에서부터 만족도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매우 넓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한정하여 그 범주를 정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다룬 교양교육과정 개선 과제들을 중심으로 요목을 9.5후 J대학 학생성장교양학부 소속 교수 3명과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①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②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③ 개설을 희망하는 주제 분야 ④ 개설 희망 교과목 ⑤ 교양교육 개편 시 시급한 과제 ⑥ 기타 개선 요구사항의 6개 범주로 한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3 실시 절차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J대학 자체 웹 리서치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학부에

Table 1. Distribution of survey participants by gender, grade, line of learning, and campus

	classification	n(%)
gender	M	191(45.2)
	F	231(54.8)
	total	422(100.0)
grade	2nd	201(47.6)
	3rd	128(30.3)
	4th	133(31.5)
	total	422(100.0)
major category	police & guard	30 (7.1)
	global business	39 (9.2)
	education	25 (5.9)
	aviation & tourism	27 (6.4)
	health & welfare	133(31.5)
	bio-convergence	22 (5.2)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11 (2.6)
	software engineering	28 (6.6)
	electrical electronics & automotive	22 (5.2)
	cultural content	43 (10.2)
	performing arts & physi. education	42 (10.0)
total	422(100.0)	
campus	C	252(59.7)
	K	170(40.3)
	total	422(100.0)

Table 2. A Survey on Students' Needs for Improvement of Liberal Arts Curriculum

※ Read and describe the following questions or mark them please.

1. What do you think is the key goal of liberal arts education?
 ① person with personality and leadership
 ② person with intelligent cultivator
 ③ achieve core competences (medical communication, window fusion, global, career design, etc.)
 ④ basic curriculum for major studies
 ⑤ other things()
2. Student growth to achieve a vision of the University of you think we must be achieved in a liberal arts courses, core competencies?
 (Choose 3 things)
 ① personality () ② communication & personal relationship
 ③ use of information () ④ ability of self-governing & employment/start-ups
 ⑤ creative convergence () ⑥ global capability
 ⑦ other things()
3. Please rank the topics of the desired liberal arts in order.
 ① basic education (thinking edu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② humanities (philosophy, speaker, literature, religion)
 ③ social science (psychology, political economics, sociology, law, cultural studies)
 ④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general, physics, mathematics, chemistry, computing)
 ⑤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4. If there is a liberal arts course that you wish to open, please describe only one subject name.
 ()
5.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urgent task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Select 2 only)
 ① reorganization of the essential subjects () ② diversification of choice subjects
 ③ expansion of subjects () ④ up-to-date version of instructional content
 ⑤ change in the method of teaching () ⑥ other things()
6. What is your hope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of liberal arts education, education, teaching methods, training hours, and evaluation?
 ()

협조공문을 보내 각 학과에 전달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각 학과에도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설문조사 의 취지와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각 학부의 직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하여 특별히 협조를 당부하였다.

2.4 자료 처리

이 연구는 J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앞서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학생들의 요구를 통계학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대강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성, 학년, 학부, 캠퍼스별 서열 혹은 우선순위만을 알아보아도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①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②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③ 개설을 희망하는 주제 분야 ④ 개설 희망 교과목교양교육의 핵심목표, ⑤ 교양교육 개편시 시급한 과제는 성·학년·학부·캠퍼스별로 빈도분석을 하였고, ⑥ 기타 개선 요구사항은 수작업을 통해 모든 응답을 정리한 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문구의 수정 없이 그대로 기술하였다.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결과

이 연구는 J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①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②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③ 개설 희망 주제 분야, ④ 개설 희망 교과목, ⑤ 교양교육과정 개편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⑥ 그밖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핵심 목표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응답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는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29.1%)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지성을 갖춘 교양인'(27.8%)과 '핵심역량의 달성'(27.8%)이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학습'(11.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지성을 갖춘 교양인, 핵심역량의 달성,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 학습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핵심역량의 달성, 지성을 갖춘 교양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전공 공부

Table 3. Percentage of responses by gender, grade, category, and campus to key objectives

classification		numbers of case(%)	person with personality & leadership	person with intelligent cultivator	achieve core competences	basic curriculum for major studies
gender	male	138(45.1)	52(37.7)	37(26.8)	28(20.3)	14(10.1)
	female	168(54.9)	37(22.0)	48(28.6)	57(33.9)	21(12.5)
grade	2nd	148(48.4)	40(27.0)	38(25.7)	43(29.1)	28(16.9)
	3rd	93(30.4)	30(32.3)	26(28.0)	26(28.0)	7(7.5)
	4th	65(21.2)	19(29.2)	21(32.3)	16(24.6)	3(4.6)
major category	humanities & society	76(24.8)	24(31.6)	19(25.0)	23(30.3)	2(2.6)
	health & welfare	120(39.2)	42(35.0)	27(22.5)	32(26.7)	29(13.3)
	natural & technology	43(14.1)	10(23.3)	12(27.9)	13(30.2)	7(16.3)
	art & physical ed.	67(21.9)	13(19.4)	27(40.3)	17(25.4)	10(14.9)
campus	C campus	157(51.3)	57(36.3)	38(24.2)	39(24.8)	18(11.5)
	K campus	149(48.7)	32(21.5)	47(31.5)	46(30.9)	17(11.4)
total		306(100)	89(29.1)	85(27.8)	85(27.8)	35(11.4)

를 위한 기초 교과학습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가장 높은 데 비해 여학생은 핵심역량의 달성이 가장 높았다.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학습은 남녀 모두 다른 핵심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둘째, 2학년은 핵심역량의 달성을, 3학년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4학년은 지성을 갖춘 교양인을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로 꼽았다.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 학습은 학년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3학년과 4학년에 현저히 낮았다.

셋째, 인문사회 계열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와 핵심역량의 달성을, 보건복지 계열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자연공학 계열은 핵심역량의 달성을,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지성을 갖춘 교양인을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로 꼽았다.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학습은 계열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인문사회 계열이 현저히 낮았다.

넷째, 지방의 C 캠퍼스는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수도권 K 캠퍼스는 지성을 갖춘 교양인과 핵심역량의 달성을 중요한 핵심 목표로 꼽았다.

요약하면,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로 남학생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여학생은 핵심역량의 달성을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 학습은 남녀 모두 다른 핵심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3.2 핵심 역량

J대학이 내세운 '학생성장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

해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응답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73.1%), 인성(71.9%),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61.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창의융합(31.1%), 정보활용(30.6%), 글로벌 역량(29.1%)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핵심역량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반응 빈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인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의 순으로, 여학생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에 관계 없이 창의융합, 정보활용, 글로벌 역량은 앞의 세 가지 역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관계 없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창의융합, 정보활용, 글로벌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인문사회 계열과 보건복지 계열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가, 자연공학 계열은 인성이, 예체능 계열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와 인성 두 핵심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관계 없이 창의융합, 정보활용, 글로벌 역량은 앞의 세 가지 역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캠퍼스에 관계 없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

Table 4. Percentage of responses by gender, grade, category, and campus to key competences that are deemed to be achieve

classification		numbers of case(%)	commu. & P.R	personality	self-governing & employment	creative conergence	use of information	global capability	other things
gender	M	184(45.0)	135(73.4)	144(78.3)	121(65.8)	51(27.7)	58(31.5)	40(21.7)	3(1.6)
	F	225(55.0)	164(72.9)	150(66.7)	131(58.2)	76(33.8)	67(29.8)	79(35.1)	8(3.6)
grade	2nd	195(47.7)	147(75.4)	144(73.8)	115(59.0)	60(30.8)	56(28.7)	59(30.3)	4(2.1)
	3rd	124(30.3)	90(72.6)	92(74.2)	80(64.5)	36(29.0)	37(29.8)	34(27.4)	3(2.4)
	4th	90(22.0)	62(68.9)	58(64.4)	57(63.3)	31(34.4)	32(35.6)	26(28.9)	4(4.4)
major category	human.& society	111(27.2)	80(72.1)	74(66.7)	67(60.4)	31(27.9)	35(31.5)	41(36.9)	5(4.5)
	health & welfare	157(38.4)	124(79.0)	122(77.7)	104(66.2)	37(23.6)	47(29.9)	35(22.3)	2(1.3)
	natural & tech.	57(13.9)	42(73.7)	45(78.9)	32(56.1)	19(33.3)	22(38.6)	10(17.5)	1(1.8)
	art & physical	84(20.5)	53(63.1)	53(63.1)	49(58.3)	40(47.6)	21(25.0)	33(39.3)	3(3.6)
campus	C	210(51.3)	160(76.2)	161(76.7)	147(70.0)	48(22.9)	60(28.6)	51(24.3)	3(1.4)
	K	199(48.7)	139(69.8)	133(66.8)	105(52.8)	79(39.7)	65(32.7)	68(34.2)	8(4.0)
total		409(100)	299(73.1)	294(71.9)	252(61.6)	127(31.1)	125(30.6)	119(29.1)	11(2.7)

※ 6개 핵심역량 중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음

Table 5. Frequency of responses by gender, grade, rank, and campus to subject areas desired to open

classification		basic learning		humanity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rt & physical	
		Top2 ¹⁾	M	Top2	M	Top2	M	Top2	M	Top2	M
gender	M	46.2	3.58	38.5	3.32	45.1	3.48	37.4	32.5	58.2	3.66
	F	43.3	3.41	35.8	3.23	42.4	3.41	21.0	27.6	61.7	3.82
grade	2nd	45.3	3.44	32.1	3.12	33.0	3.22	20.8	27.0	65.1	3.92
	3rd	45.5	3.61	36.4	3.29	55.4	3.66	32.3	31.7	56.1	3.56
	4th	41.0	3.38	51.3	3.62	52.6	3.71	41.0	3.38	53.8	3.62
major category	humanities & society	38.5	3.37	34.6	3.00	44.0	3.40	25.0	29.4	55.8	3.58
	health & welfare	45.6	3.46	26.6	3.11	36.7	3.39	28.2	30.4	50.6	3.52
	natural & technology	43.3	3.60	46.7	3.53	43.3	3.33	50.0	35.3	50.0	3.53
	art & physical ed.	50.0	3.58	50.0	3.62	54.0	3.62	18.0	25.6	86.0	4.42
campus	C	39.6	3.37	23.6	3.00	31.4	3.21	24.8	29.4	50.9	3.55
	K	49.5	3.60	50.5	3.53	55.8	3.67	31.4	30.0	69.5	3.95
total		44.5	3.48	37.0	3.27	43.5	3.44	28.1	29.7	60.2	3.75

¹⁾ Top2는 조사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를 합한 비율임

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창의융합, 정보활용, 글로벌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은 성, 학년, 계열, 캠퍼스 등의 요인에 관계 없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창의융합, 정보활용, 글로벌 역량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개설 희망 주제 분야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양 교과목의 주제 분야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응답 결과는 Table 5과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 교과목의 주제 분야는 예체능(60.2%), 기초학문(44.5%), 사회과학(43.5%), 인문학(37.0%), 자연과학 및 기술(2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에 비해 예체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설 희망 주제 분야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반응 빈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학생 모두 예체능, 기초학문,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체능은 더 높고 자연과학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학년은 예체능, 기초학문의 순으로, 3학년은 예체능, 사회과학의 순으로, 4학년은 예체능, 사회과학, 인문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선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문사회 계열은 예체능, 사회과학 순으로, 보건복지 계열은 예체능, 기초학문 순으로, 자연공학 계열은 예체능과 자연과학 순으로,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예체능, 사회과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체능 계열은 예체능 분야에 대한 선호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높고,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는 현저히 낮았다.

넷째, 캠퍼스별 반응 빈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방의 C 캠퍼스는 예체능, 기초학문의 순으로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주제 분야에 대한 반응 강도가 약했다. 수도권 K 캠퍼스는 예체능이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인문학, 기초학문은 비슷한 순으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자연과학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에 관계 없이 예체능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 교과목의 주제 분야는 예체능, 기초학문,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및 기술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예체능 분야의 교과목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았다. 요인에 따라 두드러진 특징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예체능은 더 높고 자연과학은 더 낮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또한 예체능 계열은 예체능 분야에 대한 선호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높고,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는 현저히 낮았으며, 캠퍼스에 관계 없이 예체능 분야의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4 개설 희망 교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 교과과는 다음과 같은 45개로 나타났다.

철학, 생활 속의 법, 역사, 생명과학, 뇌과학, 시, 피아

노, 바이올린, 야구 등 스포츠, 난타,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 드론, 성과 사랑, 심리학, 상담, 인권, 시민의식, 건강, 헬스, 경제학, 회계, 요가, 사랑학개론, 미술사, 미술탐방, 크로키,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인물탐구, 고전문학, 과학적성의 이해, 취업영어, 자격증 관련, 대인관계, 천문학, 인성, 자기계발, 면접, 영화, 포토샵, 컴퓨터, 해외탐방, 헬스,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목들을 묶은 후 빈도 순으로 정리한 결과, 상위 10개 희망교과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Top 10 subjects want to open

ranking	desired subject(n)	ranking	desired subject(n)
1	women's studies or feminism(7)	6	art history(3)
2	sports-related subjects such as baseball(6)	6	piano(3)
3	philosophy(6)	6	law in the life(3)
4	psychology & counseling(5)	9	human right(2)
5	sex and love(4)	9	personal relationship(2)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과목은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7), 야구 등 스포츠 관련 과목(6), 철학(6), 심리학 혹은 상담(5), 성과 사랑(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목 중에는 이미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목들도 있고, 범주가 너무 좁아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목들도 있다. 또한 '교양'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목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당국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시급한 과제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응답 비율은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80.3%)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업내용의 최신화(43.8%), 교양필수 교과목 개편(37.0%), 수업방법의 개선(32.2%)이 그 뒤를 이었다.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반응 빈도는 다음과 같다.

성별 반응 빈도는 남녀 모두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 수업내용의 최신화, 교양필수 교과목 개편, 수업방법

Table 7. Percentage of responses by gender, grade, class, and campus to the tasks that should be first reflecte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classification		number of cases(%)	expansion of subjects	up-to-date ver.of instructional content	reorganization of the essential subjects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	other things
gender	M	91(43.8)	68(74.7)	47(51.6)	35(38.5)	29(31.9)	3(3.3)
	F	117(56.2)	99(84.6)	44(37.6)	42(35.9)	38(32.5)	11(9.4)
grade	2nd	104(50.0)	82(78.8)	45(43.3)	34(32.7)	41(39.4)	6(5.8)
	3rd	65(31.3)	54(83.1)	27(41.5)	27(41.5)	17(26.2)	5(7.7)
	4th	39(18.7)	31(79.5)	19(48.7)	16(41.0)	9(23.1)	3(7.7)
major category	humanities & society	52(25.0)	45(86.5)	16(30.8)	19(36.5)	19(36.5)	5(9.6)
	health & welfare	77(37.2)	53(68.8)	42(54.5)	29(37.7)	26(33.8)	4(5.2)
	natural & technology	29(13.9)	25(86.2)	12(41.4)	12(41.4)	8(27.6)	1(3.4)
	art & physical ed.	50(24.1)	44(88.0)	21(42.0)	17(34.0)	14(28.0)	4(8.0)
campus	C	104(50.0)	73(70.2)	49(47.1)	39(37.5)	38(36.5)	9(8.7)
	K	104(50.0)	94(90.4)	42(40.4)	38(36.5)	29(27.9)	5(4.8)
total		208(100)	167(80.3)	91(43.8)	77(37.0)	67(32.2)	14(6.7)

※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시급한 과제를 5개 문항 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업내용의 최신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반응 빈도는 2, 3, 4학년 모두 교양선택 과목의 다양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양필수 교과목 개선과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계열은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를, 보건복지 계열은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와 수업내용의 최신화를 교양교육과정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보건복지 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 교양필수 교과목 개편과 수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반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두 캠퍼스 모두 교양교과목의 다양화, 수업내용의 최신화, 교양필수 교과목 개편, 수업방법의 개선의 순으로 꼽았다.

요약하면,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가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요인별 특징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업내용의 최신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양필수 교과목 개선과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퍼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J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① 교양교육의 핵심목표, ②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③ 개선을 희망하는 교양교과목의 주제 분야, ④ 개설 희망 교과목, ⑤ 교양교육 개편시 시급한 과제 등을 알아봄으로써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J대학 2개 캠퍼스 11개 학부에 재학 중인 2·3·4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로 남학생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여학생은 핵심역량의 달성을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 교과학습은 남녀 모두 다른 핵심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다.

둘째,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은 성·학년·계열·캠퍼스 등의 요인에 관계 없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창의융합, 정보활용, 글로벌 역량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선을 희망하는 교양 교과목의 주제 분야는 예체능, 기초학문,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및 기술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예체능 분야의 교과목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았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예체능은 더 높고 자연과학은 더 낮았고, 학년이 올

라갈수록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또한 예체능 계열은 예체능 분야에 대한 선호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높고,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는 현저히 낮았으며, 캠퍼스에 관계 없이 예체능 분야의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넷째,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과목은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 야구 등 스포츠 관련 과목, 철학, 심리학 혹은 상담, 성과 사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가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업내용의 최신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양필수 교과목 개선과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퍼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그밖의 요구들은 교양과목의 다양화, 교육내용의 적합화, 교육방법의 최적화, 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양과목의 수가 부족하다는 등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한 불만 섞인 요구도 많았으며, 그밖에 현실의 애로사항을 절실히 보여주면서도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J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는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와 '핵심역량의 달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양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인성', '자기진로개발 및 취·창업 역량'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교양교육과정에 예체능 분야의 과목을 늘리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양교육과정에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 스포츠 관련 과목, 철학, 심리학 혹은 상담, 성과 사랑 등의 교과목을 신설 혹은 증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조사 요목들에 대한 성·학년·계열·캠퍼스별 차이를 단순히 빈도(%)에 의존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의 목적이 그와 같은 요인들에 관계 없이 교양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빈도에 그친 점도 있다. 그러나 성 비율이 현저한 학과나 계열, 그리고 지역적 특

성이 다른 캠퍼스의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교양 교과목 개설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요인들 간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양교육과정 개편 시 흔히 반영하는 만족도를 동시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만족도 조사도 함께 하였더라면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더 명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만족도 분석은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J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혹은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es: IPA) 등의 연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World Economic Forum (2016).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Geneva: World Economic Forum, Sep, 1-44.
- [2] J. S. Kim. (2017). The prospect of futur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Forum*, pp. 25-36.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 [3] B. K. Lee, U. K. Kim & J. S. Lee. (201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general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8(1), 1-23.
- [4] Y. K. Kim & J. H. Ham. (2017). A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Implementation of Liberal Education at University: Focusing on H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0), 616-623. DOI:10.5392/JKCA.2017.17.10.616
- [5] Y. H. Choi. (2017).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s students' learning style, lectur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4), 307-332.
- [6] H. J. Youn & D. M. Bang. (2015).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key competencies in curriculum of major subject and liberal ar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7), 567-584.
- [7] S. J. Lee & S. J. Lee. (2012). A new direction of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Through a case study of competence-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2), 11-42.
- [8] J. H. Park & K. U. Ryu. (2014). The Analyses of the

-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43-82.
- [9] Y. K. Yang & W. H. Chung. (2014). Research in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liberal arts based on the NCS professional basic ability.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4), 45-68.
- [10] K. J. Cho. (2015). The problems of South Korea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s by externally imposed reform and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323-343.
- [11] S. S. Paek. (2017).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13-51.
- [12] M. S. Choi. (2017).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liberal education at the junior colleg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663-702.
- [13] E. G. Yoon & Y. J. Le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across 9 universities of the world to improve the system.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259-286.
- [14] H. K. Kim, H. J. Yun & S. H. Jin. (2019). A study on design and development of adult learner-friendly curriculum for gen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147-177.
- [15] H. J. Jung, E. H. Chon & S. M. An. (2019). Development of Liberal Arts Curriculum for the Meeting Need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7(2), 171-189.
- [16] P. G. Baek. (2012). Perception on the satisfaction, educational experiences, learning outcomes of general education: Mainly with 'A'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1), 431-466.
- [17] B. K. Lee, U. K. Kim & J. S. Lee. (201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general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8(1), 1-23.
- [18] J. M. Nam. (201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general English: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student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4(1), 47-65.
- [19] C. W. Park, J. Y. Lee & J. Y. Lee. (2018). Students' Perception of Ar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urses Taught in English in a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of South Korea: Examining a Survey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1), 141-165.
- [20] M. J. Shin. (2019).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English learning and college English class' satisfaction of North Korea refuge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21] M. S. Park.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in university music education on learning flow,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23, 1-16.
- [22] M. Y. Song & S. H. Kim. (2016). A study of the level of class satisfaction on the application of convergence design curriculum to classes in university: Focused on "Design & Creative Thinking" at Dongseo University in Busan.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54, 183-196.

이 정 열(Jung-Yull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부총장
-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고등

교육

· E-Mail : jungyull@jbm.ac.kr

김 삼 섭(Sam-Sup Kim)

[정회원]



- 1982년 2월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사)
- 1995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교육학박사)
- 1985년 9월 ~ 2014년 2월 : 공주대학교 교수
- 2015년 3월 ~ 2019년 8월 : 중부대

학교 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석좌교수

· E-Mail : koreanks@joongbu.ac.kr